



현대불교 · '불교와 문화'  
한국인의 종교 인식 조사  
초기불전연구원 후원

## 종교가 행복한 삶 가꾼다 90%

종교갈등 전망 47% ... "정보화시대 적합 종교 없다" 63%

### '리서치&리서치' 전국 대상

한국인들은 선거 때 후보자의 종교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85.4%), 절반 가량은 한국사회에서도 종교간 갈등이 발생할 것(46.6%)으로 예상했다. 또 종교인들은 종교 참여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움된다(90.0%)고 여기고 있으며, 비종교인들은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종교가 없다(63.1%)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지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불교와 문화>와 함께 초기불전연

구원 후원으로 전문조사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천명(종교인 566명, 비종교인 4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인의 종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의 종교를 '고려하지 않는다'(전혀:54.0%+별로:31.4%)는 응답이 85.4%로, '고려한다(매우:1.7%+다소:12.9%)'는 응답(14.6%)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20.1%)에 사는 가정주부(17.6%)에서 '고려' 응답 비율이 높았지만, '비고려' 응답은 남자(88.0%)가 많았다.

또 한국사회에서 앞으로 종교간 갈등이 '발생할 것(매우:8.5%+많이:38.1%)'이란 부정적 전망(46.6%)과 '발생하지 않을 것(전혀:5.6%+별로:39.1%)'이란 긍정적 전망(44.7%)이 서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대재이상(50.2%)인 미혼(52.7%)의 화이트칼라(57.1%)는 '발생할 것'이라는 응답을 많이 했지만, 대구·경북(52.4%)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에 보다 많은 대답을 했다.

90.0%의 종교인들은 종교를 갖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움 된다(매우:39.6%+다소:50.4%)'고 대답한 반면, '도움 안 된다(전혀:1.2%+별로:8.5%)'는 응답은 9.7%에 불과했다. '도움 된다'는 부모 또는 자녀와 함께 사는 2세대(92.2%) 개신교신자(95.9%) 가정주부(93.1%)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도움 안 된다'는 부모, 배우자, 자녀가 함께 사는 3세대 이상(19.4%) 본인 혼자(17.7%) 불교를 믿는(15.4%) 부산·울산·경남

(19.9%)지역 20대(15.1%) 남자(14.0%) 자영업자(15.6%)에서 높게 나타났다. 비종교인들은 지식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종교는 없지만(63.1%), 미약하게나마 불교(12.6%)가 개신교(10.7%)나 가톨릭(10.7%)보다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불교'는 불무칼라(23.3%)에서, '개신교'는 호남(18.6%) 지역에서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 이외에도 종교인들은 2세대 가족(66.8%) 형태로 가족 전부(65.5%) 믿는 경우가 많았으며, 믿을 표시는 소지하지 않는 비율(59.3%)이 높았다. 자신의 종교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드러내는 편(46.5%)과 드러내지 않는 편(45.0%)이란 응답을 비슷하게 했다. 개종 의향이 있거나 개종한 경험은 7.6%에 그쳤지만, 교리(39.7%)나 주변의 강권(35.7%) 때문에 개종했거나 고민하고 있다.

본인 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 중 가톨릭(11.8%), 불교(9.9%), 개신교(1.7%) 순으로 호감도를 보였지만, 개신교(12.7%), 여호와의 증인(12.7%) 순으로 거부감을 나타냈다. 비종교인과 타종교인에 대한 적극적인 포교(또는 전도) 의향을 보이지 않는 응답은 각각 58.4%와 81.0%로

나와, 타종교인보다 비종교인에 대한 포교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종교인 62.3%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절반 정도(49.2%)는 1년 동안 1% 미만 자신의 종교 단체에 기부한다. 비종교인들은 원래 종교에 관심 없기 때문에(71.4%) 종교를 갖지 않지만, 40.4% 중 절반가량은 3년 미만(53.4%) 개신교(65.4%)를 믿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 믿었던 종교를 현재 믿지 않는 이유로 교리 때문에(28.6%), 신도들의 형태 때문에(14.8%), 시간이 없기 때문에(14.2%)라고 대답했다. 만약 종교를 갖게 될 경우 선택하고 싶은 종교로 불교(27.7%)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종교 선택 기준으로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48.8%)라는 대답이 가장 높았다. 서울대 종교학과 윤원철 교수는 "한국인들이 종교가 도움 되는지는 하지만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종교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종교가 현대인들의 지적인 욕구를 못 채워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대인들의 지적 수준에 맞춰 이들의 욕구에 대응하는 장치를 개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4·5·6면 김원우·남동우 기자

**buddhanews.com** **확** 바깥입니다

동영상 뉴스 서비스... 15일부터 '새얼굴'

붓다뉴스가 확 달라집니다. 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간인터넷 현대 불교신문 붓다뉴스(www.buddhanews.com)가 10월 15일부터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새로운 디자인으로 불자네트즌에게 더 가깝게 다가갑니다.

20여명의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메뉴 구조를 간편하고 쉽게 바꿨습니다. 또한 한번 클릭으로 실시간 뉴스뿐만 아니라 현대불교신문의 기획기사, 연재기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콘텐츠를 크게 보강했습니다. '영상뉴스' 코너를

메뉴선택 기능 쉽게 정보 콘텐츠 대폭 보강 "행사·법회 클릭만 하면..."

신설해 매일 동영상 뉴스를 서비스합니다. 디자인은 불교문양을 현대인의 취향에 맞게 새로 개발해 네티즌들의 눈을 즐겁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02)737-0090(직) · 737-8881(대)**

**"국민의 힘 모으는 신문 되길..."**

노무현 대통령 창간 10주년 축하메시지

본지 창간 10주년을 맞아 노무현 대통령(사진)이 축하메시지를 보내왔다. 노 대통령은 축하메시지에서 "현대불교신문은 그동안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지향하며 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불교계의 정보센터로서 앞으로 더 큰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금 우리나라는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들을 이뤄가고 있다"며 "나라 사랑을 언제나 실천으로 보여주었던 불교계가 희망을 나누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 앞장서 주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창간 10돌 특집호 68면 발행**

지면 안내

**A판**

- 한국인의 종교 인식조사 4·5·6면
- 원로스님들에게 듣는다 10~11면
- '돌 선지사'의 범문 둘러세요? 7면
- 창작 단청문양의 신비 14면

**B판**

- 불교의 생활화 1~2면
- 불자 행복지수 설문조사선은 생활선이다 3면
- 인도·중국·한국 3기사의 수행현황 7·8·9면
- 불교의 현대화 11~12면
- 불교현대화 어디까지 왔다? 15면
- 의식 한글화·정보화·영상분야 '불교응용'의 근거와 방향 17면
- 대형 도심사찰 성공비결 19면
- 불교의 세계화 20~21면
- 세계인 '원호' 23면
- 해외포교 매뉴얼 24면
- 티베트불교 세계화 성공비결 25면
- 미국 서부서 배운다 26면
- 각 종단 단체들의 해외포교 전략 27면
- 국제기구 활동 상황 28면

**C판**

- 지식·정보화 시대의 미디어 2면
- 불교미디어 어제와 오늘 3면
- 불교언론인과 언론의 지향 4면
- 각계 축하 말씀·취호·축화 7~8면
- 현대불교가 걸어온 길 10년 10~11면
- 1994~2004년 인기기획 10선 12면
- 주목받은 필자와 논쟁 14면
- 설문으로 보는 1994~2004 17면
- 내 인생을 바꿔놓은 현대불교 19면

**10년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환경친화적 경영으로 ISO 14001 획득  
국제표준이슈가 지구환경보호를 위해 제정된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경영을 시행하는 기업임을 증명해주시는 인증제

**보위터의 종이는 언제나 당신에게 꿈과 기쁨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읽는 종이, 마음을 듣는 종이 보위터한라제지가 시작합니다.

최고 품질의 신문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보위터는 미국 South Carolina, Greenville에 본사를 두고 한국의 보위터한라제지를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등에 있는 10개의 공장에서 연간 300만톤의 신문용지를 생산, 유럽, 일본, 중남미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여개 신문사에 신문용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위터한라제지 株式会社**  
BOWITER HALLA PAPER CO., LTD.